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배경과 전망

반대 여론 잠재우고 FTA 처리 포석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시 검토 SRM 수입 금지 범위 대폭 확대

한국과 미국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수입 중단을 인정하는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가라앉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의 지난 8일 대국민 담화 이후 미국과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정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고조되고, 야권 등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쇠고기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경=한·미 양국이 검역주권 명문화에 합의한 것은 양국 이해 관계가 맞물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 나빠진 여론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필요했다.

한미 FTA가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내년 초 협정 발효라는 목표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미국도 일본, 멕시코와 함께 3대 쇠고기 수출시장인 한국에 쇠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재개돼야 한다고 미국 행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이번 합의 결과로 미국은 자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가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 형식을 빌려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타결된 합의문 5조, 즉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 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당산동 통합민주당사에서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도중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가 곧장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검역주권 상실'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도 우리 측의 권리에 대해 구두로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합의문 5조 자체를 건드리기 보다는, 우리 측이 미국산 수입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 부칙 내용과 우리측 권리에 대해 인정한다는 외교

문서(letter)를 써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돌기·축돌기 등 수입금지 SRM 추가=척추의 횡돌기·축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뼈)'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 여야 영수회담 개최 배경

靑 “FTA 조기 비준” 野 “美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영수회담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단체로 만나기는 했어도 손 대표와 단 둘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명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손 대표와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의 면담 뒤 브리핑을 통해 “당초 강재섭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장, 야 3당 대표 연석회의 형식의 FTA만을 위한 회동은 가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박 수석이 손 대표를 방문해 이 대통령이 쇠고기협상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 응하기로 했다”고

다.

쇠고기 협상과 별개로 한미 FTA 비준동의를 서둘러 처리하는 한나라당과 쇠고기 재협상이 FTA 비준동의의 전제조건이라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22,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17대 국회 회기를 마무리한다. 영수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은 이번주를 한미 FTA 주안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와 관련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적 명분은 ‘국정전반 폭넓게 논의’

‘동상이몽’ 만남 이견 해소 미지수

반면 차명 민주당 대변인은 “영수회담에 응하는 것 자체가 한미 쇠고기 협정의

발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만을 위한 회동이라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국정 전반에 관해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내일은 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다른 야당은 추후에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한 것은 한미 FTA의 조기 비준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 측에 한미 FTA의 조기 비준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영수가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포일 대로 포일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다. 이번 차명 민주당 대변인은 “영수회담에 응하는 것 자체가 한미 쇠고기 협정의 재협상에 대한 입장 변화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정부가 미국과 협의한 안이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더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럼에도 더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 쇠고기 협정의 재협상 문제가 해결되면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쇠고기 문제가 풀리면 FTA 문제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FTA 조기 비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 민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FTA 비준안은 건져야 한다는 청와대 측 기류, 쇠고기 파문을 둘러싼 여야 합력투기에 대한 여론의 악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지기에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과기원법 운명 오늘 결정

법사위 심의... 대전 의원들 반대 커 통과 힘들 듯

광주 과학기술원에 학부 과정을 신설하는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의 17대 국회 통과 여부가 20일 최종 결정된다.

19일 김동철 통합민주당 의원(광주 광산 갑)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최,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의 회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2일이나 23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킨다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방침이다.

통합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기원 본원이 위치한 대전 출신 법사위 소속의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및 17대 국회 회기 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광주과기원법 개정안과 연계,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법’에 대해 법사위원들의 반응이 신중치 않다는 점도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17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되며 18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을 통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F1 특별법(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문광위가 지난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17대 국회 처리가 자동적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F1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최근 18대 국회에서 F1 특별법을 제발의, 기필코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태희기자 tuim@

야3당 내일 정운천 장관 해임안 제출

쇠고기 재협상 관철 총력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임시국회 마지막 주를 맞아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정운천 농림수산물부 장관 해임안 처리 성사를 목표로 대야(對與) 총력전을 이어갔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 17대 국회 마감까지 4일 남았지만 해결해야 할 일과 당면한 과제는 산적해 있고, 그것은 양적으로 현안 과제 몇 가지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가능할 과제”라며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정 장관 해임건의안 등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쇠고기 문제를 단지 통상문제로만 보는 안 된다. 쇠고기 문

제는 국민주권의 문제”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쇠고기 문제를 회피했지만, 스스로 쇠고기 재협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당무회의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에 대한 근거를 협정 자체에 명문화해 무역 마찰을 없애도록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당은 21일 정운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 야권 공조를 통해 22~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관철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세종투어
062) 222-2209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

새종투어 여행상품을 우리V카드도 결제! 포인트 적립 혜택

할부유 최소 10만원부터

[내 하루 휴치면 한 Day!! 배]

1인당 ₩115,700 (02)

☆ 장사/장가계☆

특가상품 12회: ₩399,000 → ₩199,000 (₩200,000)

대형관광버스를 타고

특별상품 1인당 ₩400,000 → ₩200,000

국립공원 마음속에서

₩290,000 → ₩140,000

방학특가 30% 할인

₩1,074,000 → ₩534,000

대형관광버스를 타고

₩420,000 → ₩220,000

₩200,000 → ₩99,000

방학특가 30% 할인

₩870,000 → ₩470,000

대형관광버스를 타고

₩430,000 → ₩230,000